

# 아니 벌써 ~ 여름용품 시장 '후끈'

## 대형마트, 선풍기 판매 전월비 900% 늘어 에어컨 제조사, 4월 예약판매 전년의 3배

5월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등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일찌감치 여름나기를 준비하는 소비층이 증가하고 있다. 업계는 신제품 출시와 판촉행사 등을 통해 여름 대목을 놓치지 않겠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

23일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따르면 더위가 시작된 이번 주 가전매장을 중심으로 에어컨, 선풍기 등

여름 상품의 판매가 4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주요 에어컨 제조사의 4월 말 예약 판매 실적이 지난해의 3배를 넘어섰다.

주방가전 업체들도 여름 특수를 기대하며 음료 제조기 등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쿠진아트는 스무디 제조기 '룩블랜드'를 선보였고, 돌체구스토는 시

중 캡슐커피머신 중 유일하게 차가운 아이스 음료 추출이 가능한 '지니오'를 내놨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대형마트는 물론 온라인몰들도 여름상품 프로모션을 앞당겨 진행하는 등 고객몰이에 한창이다.

아외활동이 늘면서 해충, 모기에 대비한 퇴치용품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대표적인 여름 상품인 선풍기, 방풍기 등 가전제품 판매량도 눈에 띄게 상승했다.

특히 확산되고 있는 '살인진드기 공포'로 진드기 방제 효과가 있는 방충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방충제 매출은 30%나 늘었으며 같은 기간에 진드기 퇴치 기능이 있는 제품 매출은 2배 이상 급증했다.

선풍기 판매량은 전월 대비 90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온라인몰 마다 여름 가전엔 물론 여름 패션, 여름 먹거리 등을 찾는 소비자들이 대거 몰렸다"며 "올 여름 더위가 지난해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기상 예보가 이어지고 있어 여름상품 매출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때 이른 더위에 일찌감치 여름나기를 준비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대형마트 가전매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마트 제공)

여행업계와 항공업계는 전통적으로 비수기로 꼽혔던 6월 휴가객 증가를 눈여겨 보고 있다.

혼잡한 바캉스 시즌을 피하면서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려는 고객 유치를 위한 각종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가운데 오른쪽)과 강운태 광주시장(가운데 왼쪽) 등이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ICID 광주총회 조직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 농어촌공 '2014 ICID 광주총회' 조직위 출범

<국제관개배수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가 2014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International Commission on Irrigation and Drainage) 광주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섰다.

23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ICID 광주총회 광주조직위원회 현판제막식과 함께 제2차 조직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재순 조직위원장과 이형석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등 조직위원 및 운영위원 60여명이 참석, 2014년 ICID 광주총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추진 경과 점검 및 주제 토론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이날 2014 ICID 광주총회의 공식 슬로건으로 '모아라, 나눠라, 이어라! 생명의 물'을 선정했다. 또 개최지역 자체 행사준비기구인 광주조직위원회(위원장 이형석)를 구성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열리게 되는 2014 ICID 광주총회는 국제기구를 포함한 전세계

60여개국 1200여명의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관계배수분야 최고의 국제회의이다. 내년 9월 14일부터 1주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재순 위원장을 포함한 ICID 광주총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태극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물 정상회의에 참가해 13개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 대상 우리나라 물관리 비전과 정책을 설명하고 ICID 광주총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 우리금융, 이순우 회장·행장 겸직체제

차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23일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 회장 겸직을 결의하고, 민영화가 완료되면 임기와 관계없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이날 오후 회주위가 이 행장을 내정자로 발표한 뒤 이런 의지를 공식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10일 우리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인터뷰에서도 같은 취지로 언급했다.

이 행장은 "내가 행장을 그만두게 되면 행장을 뺀 뒤의 공백 기간이 생긴다"며 "민영화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은행장이 중요한 시기에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회장과 행장을 겸임했던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 시절 고위험 과생상품인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본 게 '제동장치' 없는 권한 집중 탓 아니냐는 지적에 "민영화를 위해 (겸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회장 취임 이후 "민영화를 앞두고 흔들릴 수 있는 조직을 추스르

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영화는 우리금융에 매우 화급한 사안"이라고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행장은 민영화가 완료되면 우리금융 회장직은 물론 우리은행장 자리에서도 미련없이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내부 출신으로서 (합병 등에 반대할) 노조와의 관계를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오는 24일 회의를 열어 이 행장의 회장 선임에 대한 안건을 임시 주주총회에 상정한다. <연남뉴스>

## 새마을 금고 창립 50년 새 CI 공개

'다함께 잘 살자'는 이념으로 시작된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3일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회원과 임직원 3만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금고 창립 50주년 기념 전국 새마을금고인

대회'를 열고, 친절과 윤리경영을 선포하는 '대국민 행복선언'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마을금고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287명에 대한 정부 포상·표창도 수여됐다.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새마을금고 반세기의 역사는 미래를 현실로 실현시키는 창조의 과정"이라며 "새마을금고를 국민 다수가 사랑할 수 있는 윤리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는 임직원에게 대한 친절 및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건전성 감독 강화 및 외부계감사 확대를 통해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CI(사진)를 선포했다. 이번에 변경된 CI는 새로운 변화·발전 등 이미지 개선을 통해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새마을금고상을 표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시장 맛집 백화점에 뒀다

### 롯데백화점, 30일까지 특별 초대전

"재래시장의 맛집 명품이 백화점에 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 동안 '전통시장 유명 맛집 특별초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초대전은 전통시장 명품로 손꼽히는 맛집들을 백화점에서 선보여 상점의 매출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백화점 고객들이 향후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원 시장인 대인시장에서 선정된 총 13개 우수업소 상품들을 백화점 1층 특별매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 업체로는 해남떡집(떡), 주영상회(훈어), 창평시골두부(두부), 빛고를 명품김치(김치, 전) 등 대인시장



일대에서 맛이 좋기로 소문난 집들이다.

류민열 롯데백화점 광주지역장은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의 우수 맛집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우수 맛집을 발굴하고 홍보해 백화점에 입점시키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 "질 좋은 농산물 값싸게"

### 광주농협 '화요 장터' 개장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는 28일 오전 북구 우두동 북광주농협 신용동지점 앞에서 매주 화요일 '농특산물 화요 직거래장터'를 개장하고 광주지역 농특산물 팔아주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광주본부는 무등산국립공원 내 금오직거래장터에 이어 추가로 이번 장터를 개장해 우리지역의 농업인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판매해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계획이다.

이 장터에서는 미나리, 토마토, 딸기를 비롯한 계절 농산물을 시중가 대비 10~20% 저렴하게 판매한다.

박태식 본부장은 "직거래 장터 활성화에 힘써줄 때 새로운 사업상을 개 최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http://art.kjmedia.co.kr | 062. 220. 0541

## 50 호남예술제 새싹 그리기 축제

접수기간 | 2013년 6월 10일 월 ~ 6월 14일 금

1. 개요 | 작품 공모 |

- 대상 : 전국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 시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 결과발표 : 2013년 6월 25일(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에 발표
- 작품크기 : 8절(개인 용지 사용가능)
- 주제 : 제한 없음

2. 참가 |

- 참가비 : 7,000원(20명 이상 단체할인 4,000원) \*단체는 접수 전 연락바랍니다. (062-220-0541)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싹그리기축제 담당자 앞)

3. 유의사항

-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사유가 인정될 시 심사에 제외됨.
- 공지내역 외 일반적인 대회요건에 준함.

4. 문의전화 : 062-220-0541

주최 | **광주일보** | 협찬 | **SAMSUNG 삼성생명**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